



머리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찬미 예수님!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직원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정사목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식구들의 기도와 노고 덕분에 이곳이 하느님의 자비를 살아가는 자리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걸어가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저는 이곳이 처음은 아닙니다. 11년 전, 신학생 시절에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며 교정사목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히고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을 가장 깊이 살아내는 길임을 배웠고, 나는 어떠한 사제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기에, 이번 부임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부르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11년 전과 지금의 저는 많이 다릅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사제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곳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당 사목에만 몸담아 오다가 처음으로 특수 사목을 맡게 되면서, 익숙한 느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긴장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신앙과 거리가 먼 이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목자로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먼저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익히며 천천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층에 새겨진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는 이곳의 사목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단순히 따뜻한 감정을 넘어, 모든 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교정사목이야말로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직접 실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의 자비를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많이 배우고, 또 제가 가진 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예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조언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산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1월 18일(토)~19일(일) 당산동 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물을 나르던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을 봅니다.”라며,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묵묵히 물을 나르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당산동성당 신부님과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2월 10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안식년으로 교정사목을 떠나는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송별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현대일 신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정민하 율리오 신부는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직무를 맡은 정민하 신부를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2차 이사회



2월 14일(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2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님들과 임원 변경, 기쁨과희망은행 운영 규정 및 2024년 결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 부임



2월 18일(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 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이승민 신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 유감

이종환 안셀모 _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오늘도 어린양은 높이 받들어 올려지고 갈망의 눈동자들이 한곳으로 모아졌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어서 미사 해설자의 주의 사항 안내가 나옵니다. 사제는 성체가 담긴 성합을 조심히 받쳐 들고 제단에서 내려와 성체 분배를 시작하고, 푸른 옷 형제들이 줄지어 다가섭니다. 그렇게 영성체의 분배는 진행되던 중 한 형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웬지 식연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을 무언가 움켜잡은 듯 주뻔주뻔하며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에 본능적으로 다급히 일어나 가서 그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키가 한 뼘도 더 큰 젊은이였습니다.

“형제님, 잠깐 왼손에 쥐고 계신 거 펴보세요.”

그가 계면쩍어하는 표정을 짓더니 순순히 손을 펴 보였는데, 거기에는 성체가 놓여 있고 이미 한 모퉁이가 이빨로 물어뜯겨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형제님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아뇨!”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성체는 제가 모셔야겠습니다. 영성체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야만 모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신중히 말하고는 성체를 조심히 제 손바닥에 옮겼습니다.

“다음엔 꼭 천주교에서 세례받고 나서 영성체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하며 나뉘 부드럽게 당부의 말도 건넵니다. 그리고 성체는 다시 사제에게로 무사히 건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모령 성체에 관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어떻게 잡고 집에 도착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서 감히 떳떳이 영성체할 자격이 있겠는가?

담장 안 형제나 나나 죄인들로서 정도의 차이일 뿐, 그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과 나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오십보백보 죄인일 뿐.

그러나 한가지,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요 바로 그 실체이니, 그분의 가르침대로 세례받고,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죄가 사해진 상태에서 영성체를 모셔야 하니까.

바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1 11,27~29)

그러하니, 이를 최소한 만큼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아비가일은 ‘아버지 기쁨’, ‘하느님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아비, 에비 등의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12월에 소개해 드린 나발의 아내입니다. 성경에서는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답”(1사무 25,3)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무시합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무장하고 나발에게 향합니다. 일꾼 중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사무 25,17) 일꾼 중에 아비가일 라인이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일꾼들은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올바르게 조치해서 닥치는 화를 막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서둘러 “빵 이백 덩이, 술 두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붉은 밀 다섯 스아, 건포도 백 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이백 개”(1사무 25,18)를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마련하여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향합니다. 일꾼의 보고를 받거나, 재량권을 가지고 음식을 마련하는 등 아비가일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의 원수들과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빕니다. (...)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자기에 감싸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사무 25,24~31)

아비가일이 애원하는 말은, 무척이나 지혜롭습니다. 다윗을 ‘나리’라고 높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자신은 여종이라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라 말합니다. 나발은 고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니 신경을 쓰지 말라고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발을 지워버립니다. 주님께 서 복수하실 터이니, 굳이 손에 피를 묻혀 가며 복수하지 말라는, 자칫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 청을, 이미 이루어진 듯 과거형으로 애둘러 표현합니다. 마치 나발은 나락에 이미 떨어진 듯, 앞으로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발처럼 될 것이며, 큰 사람이 되실 것이라며 칭송합니다.

게다가 아비가일이 말하는 “나리의 원수”,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이 ‘생명의 보자기’에 감싸이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집안의 “벽에 오줌을 누는 자”(1사무 25,22)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다윗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입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정치적 질투로 인한 갈등과 폭력은 놈의 사제 아히멜렉(1사무 21,1-10; 22,6-23),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정치적 사건에 무지하였고, 이 무지로 인해 자신과 성읍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나발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자 다윗의 도움을 무시했지만, 이는 다윗의 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비가일은 가해자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 올바른에 지지를 지혜롭게 표현하였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1사무 25,42).

나발의 잘못을 자신의 죄라고 말하며 중재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간혀 있는 자녀들이 마치 자신의 탓인 양 속앓이를 하는 수용자들의 부모님, 가족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탄원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합의를 부탁하며 상대방에게 계속 머리 조아립니다. 가진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허리띠를 더 조여 매고 고생하며, 더 고되게 살아갑니다. 또 10여 분의 짧은 접견하기 위해 외지 교정시설을 장시간 찾아갑니다. 그들의 애타는 정성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교정의 길에 [기쁨과희망은행]을 마주하고

김승태_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교정(矯正),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가진 ‘교(矯)’와 ‘바르게 한다’는 의미의 ‘정(正)’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교정이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다시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교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형기 동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교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믿기 때문이다’는 말에 공감하여 교정에 참여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정의 길에 기쁨과희망은행을 마주하였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과 함께 하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고, 수용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교본적인 단순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돌아보면 교정위원으로 수용자분들에게 무언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해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수용자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과 취업이라는 목표를 갖고 소통하는 시간 속에 교정(矯正)을 교정(交情)이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情)이라는 한자에는 ‘마음의 작용’ ‘사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정(交情)이라고 하면 서로가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는 고린도 전서의 구절은 수용자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교정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담은 ‘기쁨과희망은행’의 교정의 길에 함께 하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과 눈도 거세지만, 봄이 멀지 않았듯 희망을 품은 이들에게 봄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과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봄을 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정진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1. 천기여수님!

신부님.

갑자기 심정사약을 떠나신다는 말을 들으니 서운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자정리라고 간담이 얹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법이겠지요. 멀리 생육재 하면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간담이 찾아온다는 의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늘 사랑의 생각과 멀리 내다보시고 양친의 길을 가도록 예비하시느라 하시니 아가 신부님을 위해라도 뜻 계획을 세워두셨을지라 생각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천정의 삶은 심정사약 현장에서 제언을 다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동안 담장 안에 갇힌 길 잃은 양들을 위해 신부님이 부린 사랑의 씨앗들이 씨를 틔우고 앓고 일하는 병든 열매를 맺기도 했을 것입니다.

죽어선다 근로자 생애마으로 폭도 가혹도 지적 받는 노동자들에게 마스코트 신사 등 동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모두가 감사해 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대외 주를 하는 관공을 독상한 강론을 일일이 신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해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죽어선다 이어진 안락과 근력으로 영적 주기에 빠져 하릴없이 시간만 주내던 저에게 천에 신비였는데 '신학편지'를 시작하는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었지요.

영양한 환경 속에서 심정사약을 위해 정신하신 신부님의 노고나 사랑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부님이 가시는 길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빌어. 산티아고 관례가에서 오래 전 청아음을 나누었던 하느님과 재회하시어 드디어 아님 나누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곧게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 중에 기뻐하겠습니다.'

2025. 2. 7 프란치스코 드레

4월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4차 정기총회 및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일시 : 2025년 4월 7일 월요일 10시 제64차 정기총회 / 11시 월례 미사
-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행사 알림

- 3월 10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3월 12일(수)~14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남사
- 3월 13일(목)~14일(금), 17일(월)~18일(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1기 인성교육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국군교도소
- 3월 15일(토)~16일(일) 성내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3월 19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3월 21일(금), 26일(수)~27일(목)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1기 성폭력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 과정
- 3월 24일(월)~27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 3월 29일(토)~30일(일) 서대문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1/16~25/02/14)

2025년 1월~2월에는 김민수 첨마, 김솔기 아가다, 윤정권, 당산동성당 강태경 라파엘 외 78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나유연, 당산동성당 강양순 외 69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 (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